

서울 내 산업재해 대부분 中企서 발생... “가이드라인 필요”

2018년 산업재해자 94%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서비스업, 제조·건설업 대비 2.4배

서울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대다수가 노동환경이 취약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시내 산업재해자 1만4355명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는 1만3471명으로 전체의 93.8%에 달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중소기업의 산업별 위험 환경을 살펴본 결과, 3대 산업(건설·제조·서비스업) 중 건설업은 공사 현장의 진동과 분진에 시달리는 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근무시간의 4분의 1

〈서울시 중소기업의 재해자·사망자 점유 실태〉

구분	서울시(명)	중소기업(명)	재해율(%) 또는 사망만인율(‰)	중소기업 점유 비율(%)
노동자 수	4,434,635	3,413,397		
재해자 수	14,355	13,471	0.39	93.8
사망자 수	216	184	0.54	85.2
사고사망자 수	83	75	0.22	90.4

/서울연구원

이상이 진동에 노출된 건설업 노동자 비율은 58.0%, 분진 환경에 놓인 근로자는 45.8%로 다른 산업보다 많았다.

제조업 노동자는 기계 진동(35.7%)과 소음(28.9%), 서비스업 종사자는 실내·외 저온(18.9%) 및 고온(17.0%) 환경으로 고통받았다.

반복적 동작과 같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된 비중은 건설·제조·서비스업 모두에서 69%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고객·환자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에 근무시간의 1/4 이상이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69.5%로, 제조업과 건설업 대비 2.4배 많았다.

서울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 관련성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청력문제, 건설업에서는 피부문제와 요통, 사고로 인한 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관련 비율이 100% 수준이다”면서 “기준에 해당 문제를 갖고 있던 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를 겪을 때 사측이 배려해 직무 또는 직장환경이 조정된 경우는 사업체 규모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2017년) 자료에 의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응답자의 57.3%가 조정됐다고 답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체는 조정된 비율이 10.0%~35.6%로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조정 비율이 51.9%로 높았고 건설업(21.5%)과 서비스업(20.4%)은 20%대 초반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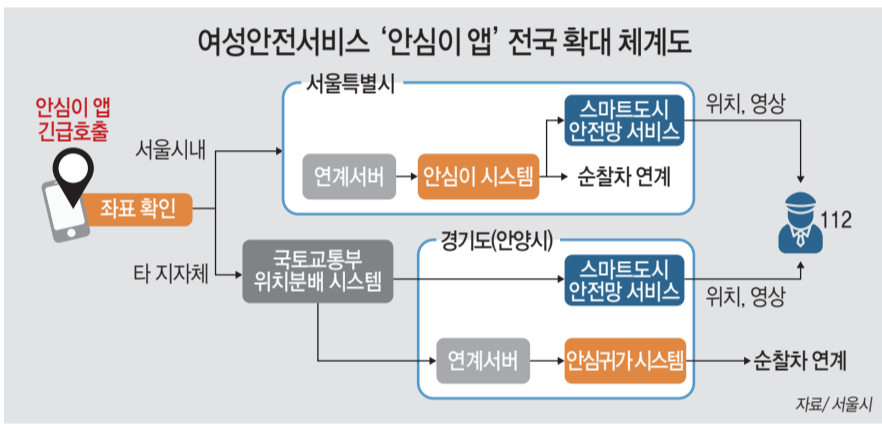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산하 기관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지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해 서울형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점검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시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울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를 주체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노동자가 참여해 각각의 역할을 분담,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산업별로 100인 이상이나 5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서울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216명이었는데 이 중 184명(85.2%)이 중소기업 종사자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가 만든 ‘안심이 앱’ 전국으로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심이 앱을 내려받은 누구나 위급상황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흔

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센터는 실시간 CCTV 영상을 112상황실에 전달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대처한다.

시는 이날 여가부, 국토부, 경기안양시와 함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11월부터 안양시와 안심이 앱 연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안양시 여성안심 앱을 서울에서 사용할 경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안심이 앱은 4월 기준으로 12만1000여명이 내려받았다. 서비스별로는 ▲긴급신고 1만6753건 ▲안심귀가 모니터링 3만9121건 ▲스카우트 지원 4167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사, 올해는 온라인 시행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가 4번째다. 원래는 1대1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중 선정된 표본 1500명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조사요원이 비대면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하되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1대1 개별 전화면접을 한다.

실태조사 항목은 장애인의 건강관리·건강상태, 일상생활, 자립생활, 고용 등 총 11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중증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노후 지하철 사라진다... 6629억 들여 환경개선

서울교통공 안전분야예산 대폭 확대 연말까지 신형 전동차 제작 완료 40년 넘은 노후시설 교체 3637억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안전분야에 6629억원을 들여 노후 시설과 낡은 전동차를 교체하는 등 역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시설 개선에 작년엔 투입한 예산이 431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신형 전동차 제작에 2243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2호선 124칸, 3호선 80칸, 5호선 32칸 등 신형 전동차 236칸의 제작을 완료하고 차량기지에 순차적으로 입고시킬 계획이다.

또 4호선 신형 전동차 210칸은 지난 15일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신형 전동차 제작 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입 부품의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개통 4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 교체에 3637억원을 사용한다. 변전소 전력설비, 송배전설비, 전차선로처럼 열차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전기설비를 최신으로 개량하는 데 642억원을 쓴다.

송풍기 등 낡은 환기설비와 소방펌프, 배관과 같은 소방설비 분야에도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 공사는 하반기까지 6개 공구에서 이어진다. 공사는 2011년



차량기지에서 대기 중인 2호선 신형 전동차(왼쪽)와 1호선 구형 전동차. /서울교통공사

부터 순차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1~4호선간의 길이 53.2km 구간 중 46.2km의 공사를 마쳤다. 남은 7km 구간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 2호선 잠실새내역, 4호선 미아역과 쌍문역은 건설 당시 설치하지 못한 역사 냉방시설을 달고 마감재를 전면 교체한다. 1호선 동대문역, 신설동역, 종로5가역은 천장, 바닥, 벽체 등 마감재 교체 공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승강장 안전문 개선, 열차무선시스템 LTE-R 방식 업그레이드, 궤도설비 개량과 같은 안전성 강화 사업을 벌인다.

공사는 안전 분야 투자와 별도로 승강편의시설 및 화장실 확충, 공기질 개선에 약 1690억원을 투자한다. 군자역, 태릉입구역, 수락산역 포함 30개역 60개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생기고 남한산성입구역, 상수역 엘리베이터 설치

로 ‘1역 1동선’ 확보율이 91.4%에서 92.1%까지 높아진다.

1역 1동선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열차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광화문역, 신내역, 수진역이 1역 1동선 역사에 추가됐다.

대청역, 상도역, 마포구청역 등 10개역에서는 여성화장실 변기 수 증설과 장애인 화장실 확충과 같은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열차 출입문 개폐 시 객실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열차에 공기질 개선장치도 새로 설치한다.

신형 전동차는 제작 과정에서 설치로 하고 있으며, 기존 전동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순차 설치한다. 올해 설치물량은 1076칸이다. 지하철 역사에는 역당 평균 16대의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김현정 기자

올 봄 화재 1369건... 전년비 13% 감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올해 봄(3월 1일~5월 31일)에 화재 1369건이 발생해 사망자 11명과 부상자 41명이 나왔으며 재산피해액은 38억7934만원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로는 13%, 사망자 수로는 27%, 부상자 수로는 42%, 재산피해액은 46% 줄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 13%, 40%, 20% 줄



어든 수치다.

관계자는 “2020년도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